‘산불 초토화’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성·속초 등 5개 시군
생계안정비용 등 지원
문 정부 들어 6번째 지정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토성면 용촌마을에서 한 주민이 폐허가 된 건물을 바라보며 귀가 하고 있다.
/강원일보=박승선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강원도 산불로 생긴 피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탄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외에 임야 530ha,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 1명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이재민 722명이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인근 공공기관 연수시설에 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0시 강원도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진 장관은 “이제는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재민이 원하는 주거 지원 유형 수요를 확인하고 조립주택 설치 등을 위한 용지 확보, 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강원 도민 여러분 힘 내세요

광주·전남 구호물품·봉사자 파견…장성군 성금 모금
현대차 성금 10억·세탁차량…롯데 2천명분 식료품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국내 대기업 등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19면〉

광주시는 7일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강원도민을 돕기 위해 지난 5일 구호물품을 전달했고, 자원봉사자들도 파견하기로 했다”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빛여울수 740박스와 음료 등 600여만원가량의 물품을 강원도 고성군 포성면사무소에 전달했다. 또 8일 광주시자원봉사자 100여명을 파견해 피해 복구 작업 등을 도울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9일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원도를 찾아 도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전남도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 전국에서 지원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도 지역 사회단체연합회 임원, NH농협 등 관계기관장, 공무원 등이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8일부터 15일까지 1차 성금 모금을 펼치기로 했다. 장성군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자율모금함을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를 피해 지역에 투입한다. 또, 현대·기아차는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수리할 경우 최대 50%를 할인해준다. 렌터카 사용료도 10일간 50%를 지원한다.

롯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전국재해구호협회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6억원 규모의 재해 긴급구호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이 일어난 지난 4일부터 즉시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를 시작했다. 롯데의 유통망을 활용해 피해지역과 가장 가까운 세븐일레븐 강원도 물류센터에서 생수·컵라면·즉석밥·통조림·물티슈 등 2000명분의 식료품도 전달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도 피해 주민을 돕고자 주요 생필품을 속초시청과 고성군청에 보냈고,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은 전날 피해지역 주민과 소방관을 위해 남녀 티셔츠 1200벌, 겉옷 500벌, 양말 1000족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속초시청에 전달했다.

구호 물품은 산불로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과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소방관·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된다.

한편 강원도는 동해안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시설 긴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1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지을·오광록 기자 dok2000@·연합뉴스

전남도 ‘어촌뉴딜300 사업’ 성공 위해 26개 어촌·어항 현장 밀착 자문 나서

전남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현장 밀착형 자문에 나선다. 어촌뉴딜300 현장 밀착형 자문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 팀 42명의 자문단이 2019년 사업 대상지 26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별 설계 과정까지 2~3회 현장 밀착 자문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요청 시 상시 자문도 지원된다.

자문단은 수산·어촌·지역경제·경영, 문화·관광·레저, 건축·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기술, 공동체·지역 콘텐츠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업 추진 과정은 물론 사업 완료 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추진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침체된 어촌경제를 회복시켜 어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사업이다. 4년간 3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전남도는 2019년 공모사업에서 전국 70개소 중 26개소(전국 37%)로 가장 많은 곳이 선정돼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본격화

국가균형발전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완도군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지역 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 완도군을 비롯한 11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완도군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지역 해양자원을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 자원화해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지역특화 전략사업이다.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 낙후된 어촌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지역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6월께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작은영화관 6곳 누적 관람객 72만명·9억 흑자

전남도내 6개소의 작은영화관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관람객 72만명과 순이익 9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서 조성해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성읍 녹차골 향토시장에 2개 관 96석 규모의 ‘보성 작은영화관’을 개관했다. 전남 작은영화관 7호점이다. 작은영화관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1호점인 장흥 정남진시네마를 비롯해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6개 군이 개관해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단독섬
바로삽니다. 010-6834-7400/지분물건 환영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전복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복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2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 → 합격자 선정→ 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2019. 4. 16(화) 18:00시 限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3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복(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4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복(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5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복(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복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